

One step at a time :

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.
 "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. 알겠니? 다음에 던져
 될 걸음. 다음에 쉬게 될 호흡. 다음에 하게 될 비밀만 생각해야
 하는 거야.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."
 그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
 덧붙였다.
 "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. 그게 중요한 거야. 그러면 일을
 잘 해 낼 수 있어. 그래야 하는 거야."
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.
 "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쫓았다는
 것을 깨닫게 되지.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, 숨이 차지
 도 않아."
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했어.
 "그게 중요한 거야."
 또 한 번은 이런 이

나는 오늘 걱정했다.
 나는 오늘
 행복하기로 걱정했다.
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
 감사하기로 걱정했고,
 오늘 마주하는 모든 풍경에
 감탄하기로 걱정했다.
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
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
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

가는 사람
 아하고 거기에 빠져
 고 싶긴 하지만, '내가 그런 사
 나를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? 그냥 이런 나
 되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저는
 책에 집착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책은 말하기가 힘
 든 게, 사람들이 좀 재수 없어하는 거 같아요. 거짓말
 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. 취미가 뭐예요? 물어와서
 책 읽는 거요. 이러면 "어, 여기 면접 자리 아닌데" 이
 도 하고



초, 중, 고, 대학교까지! 다독상을 농친적 없는 독서광입니다☺

무덤들

트라우마

내가 처음 사랑한 얼굴을 잊은 뒤에도 몇 번 더 사
 랑을 했다. 사랑한 얼굴이 들어가고 여러 기억이 뒤
 죽박죽 섞이자 눈이 세 개, 이마에 코가 달린, 입이
 없는 그런 얼굴만 떠올라 결국 한 명의 사람을 떠올
 리지 못했다. 느낌과 감정만 남은 게 마치 영화를 보
 고 나온 직후 같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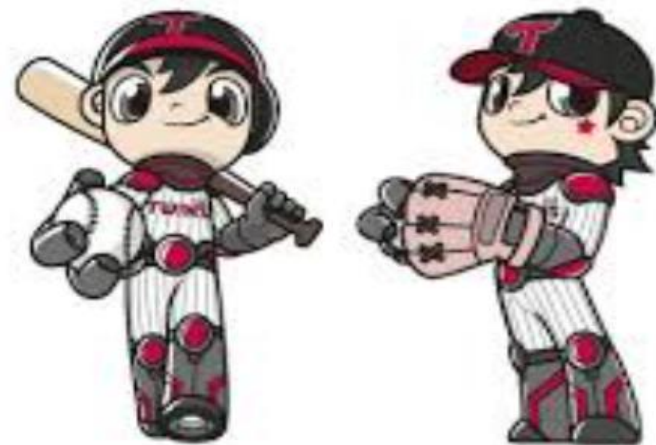
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니 뭐니 하는 도덕 따위에는 별로
 관심이 없습니다. 저한테는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, 혹은 살
 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존재인
 것입니다. 인간은 끝내 저한테 그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았습
 니다. 그것만 터득했다라면 제가 이렇게 인간을 두려워하면서
 필사적인 서비스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.
 인간의 삶과 대립되어 밤이면 밤마다 지옥 같은 괴로움을 맛
 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. 즉 제가 머슴과 하녀들의
 그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
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도 아니고, 또 기독교적 박애주의 때문
 도 아니고, 인간이 저 요조에게 신용이라는 겹질을 단단히 단
 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부모님조차도 제가 이해할
 수 없는 면을 가끔 보이셨으니까요.

마음을 비운다는 게 아주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, 결국
 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. 내려놓고 과정을 그저 즐길
 줄 아는 이가 되는 것. 내가 지금 전 것에 대해 충분히 인
 정하는 일.

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.



무적LG



무적LG!! 야구장 직관 가는 것을 좋아해요~!

